

숙식비 낼테니 시주 하시려요?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⑩ 숙인들의 탐심에 일갈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과 여러 날 짝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그만 여비가 푹 떨어졌다. 날이 지물어 여관에 행장을 풀고 하룻밤을 쉬게 됐다. 다음날 여관주인이 경허·만공 스님에게 숙박비와 식대를 내라고 했다.

그러자 경허 스님이 "우리가 법당을 중수하려고 화주를 나왔습니다. 주인께서도 시주를 하시지요?" 라고 말했다.

여관주인이 잠자코 있다가 답했다.

"그러면 그 화주 책을 한번 봅시다."

만공 스님이 꿈같이 생각해보니 경허 스님에게 화주 책이 없었다. 화주 책도 없는데 시주하라고 말을 꺼냈으니 큰일이었다. 만공 스님이 말했다.

"실은 이 주인댁에 우리가 화주를 하려고 왔으나 지난 밤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아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댁에서는 시주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주 책을 내놓지 않고 둘러대는 만공 스님의 말에 얼떨떨해진 여관주인은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이때 만공 스님이 덧붙인 한마디가 가관이었다.

"그렇게 까지 패념하시어 우리에게 시주까지 고맙게 해 주신다면 책을 꺼내 보여드리지요."

만공 스님은 걸망 속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정작 잊지도 않은 화주 책을 꺼낼 기세였다.

그러자 여관주인이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스님들" 하며 책 꺼내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 아닌가. 주인으로서의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관비를 받기느라 법당 중수 화주까지 하게 생겼다는 생각에 책 꺼내는 것을 극구 만류할 수밖에 없었다.

여관 주인은 "스님들, 그렇다면 제가 시주를 특별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두 분의 숙식비는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지지요" 하고 정중히 말했다.

여관에서 나오자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말했다.

"자네 수단이 나보다 훨씬 낫네 그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과 만행하며 겪은 고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고비 마다 만공 스님은 기지를 발휘했다.

어느 날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모시고 전주 인근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어느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두 스님은 구한말 시대에 쓰던 은백전을 내 주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 돈은 전라도 도지사 사가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받을 수 없으니 여기서 쓰는 돈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당시는 일제가 침략 정책에 의해 화폐개혁을 하고 새 화폐 사용을 강요하던 시기였다.

식당주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허 스님이 큰 눈을 부릅뜨고 일갈했다.

"그 도지사란 놈은 당장 잡아 목을 벨 놈이로구나.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돈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 못하다니, 그런 죽일 놈이 있던 말이나? 이 돈을 썩 받아라!"

"그 도지사란 놈 당장 목을 벨..."

서슬퍼런 호통에 일본 관원도 머뭇

바위 내려앉을 리 없던 말에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

스님의 호통에 주인은 얼떨결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식당 주변에는 일제 관원이 나와 있었다. 관원이 이 광경을 보고 개입하려 했지만 서슬퍼런 스님의 야단에 관원조차 무어라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허 스님은 이 틈을 타 식당을 나와 뛰기 시작했다. 만공 스님은 태연한 척 마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 하고는 부리나케 경허 스님을 쫓아 식당을 빠져 나왔다. 얼마를 갔을까, 산모퉁이를 돌고나니 경허 스님이 쉬며 있었다.

"내가 어지간하지. 그 바람에 길을 많이 걸어야 했다. 어따냐. 내 재주가?"

경허 스님의 너털웃음에 두 스님은 만행의 괴로움을 잊고 다시 길을 떠났다.



⑪ 동굴에서 비를 피하며

경허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이 어느 산중 깊은 길을 가다 갑자기 비를 만났다. 두 스님은 큰 바위 동굴에 몸을 피했다.

조용한 가운데 경허 스님이 단단한 바위로 된 동굴 천장을 자주 올려다 보는 것이 아닌가. 만공 스님이 이런 경허 스님에게 의아해 말했다.

"스님은 왜 그렇게 천장을 올려다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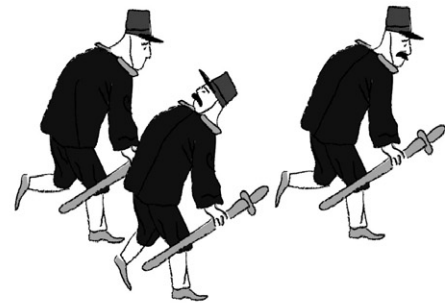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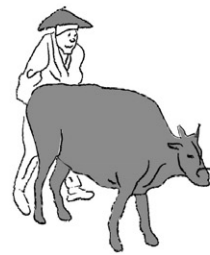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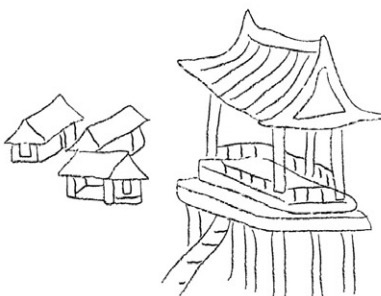
경허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 바위가 내려 앉을 리가 없겠느냐?"

만공 스님이 "스님 이 끄덕없는 바위가 내려 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경허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박구원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성지순례

미안마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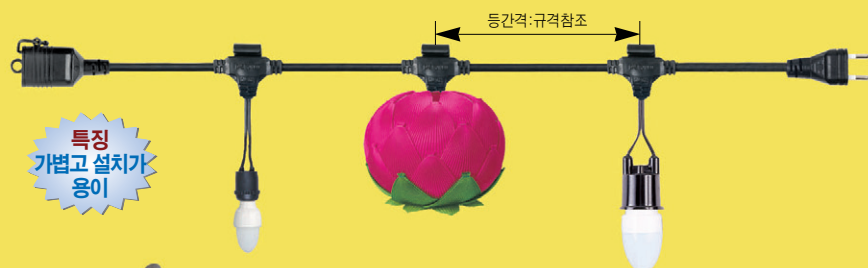
-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 ~ 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개원기념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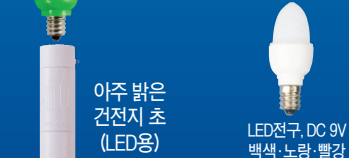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용(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